

NHIS Daily

Morning Line

2014.8.29(금)

NHIS Research Center

- ▶ 국내 시황 및 오늘의 투자전략
- ▶ 해외 증시 동향
- ▶ 오늘의 경제지표
- ▶ 오늘의 채권시황
- ▶ 기업분석 : LG이노텍(011070)

현대공업(170030)



Morning Line

이아람 선임연구원 02)2004-4790, aram@nhis.co.kr

주식시장

	전일 증가	변동폭	등락률
KOSPI	2,075.76	0.83	0.04
KOSDAQ	570.24	3.01	0.53
KOSPI200	266.19	0.31	0.12
DOW	17,079.57	-42.44	-0.25
NASDAQ	4,557.70	-11.93	-0.26
S&P500	1,996.74	-3.38	-0.17
상해종합	2,195.82	-13.65	-0.62
NIKKEI225	15,459.86	-74.96	-0.48

주요지표

	전일 증가	변동폭	등락률
국채3년	2.53	0.00	-0.04
미국국채(10년물)	2.34	-0.02	-0.90
원/달러 환율	1,014.45	0.17	0.02
원/100엔 환율	978.02	0.02	0.16
WTI	94.55	0.67	0.71
BDI	1,119.00	56.00	5.27
금	1,290.40	7.00	0.55
로저스 농산물지수	987.72	3.88	0.39

국내 시황 및
오늘의 투자전략

전일 KOSPI는 외국인 순매수와 기관, 개인의 순매도가 공방을 벌인 끝에 강보합으로 마감했다. 오전 중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에 힘입어 연중 최고치 경신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오후 들어 기관이 순매도로 전환하며 지수도 하락 반전했다. 업종별로는 통신, 비금속, 섬유·의복 업종 등이 KOSPI 수익률을 상회했고, 운수창고, 의료정밀, 보험 업종 등은 KOSPI 수익률을 하회했다. 다음주 국내증시는 단기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 욕구, 주요국 월초 경제지표 발표, 추석 연휴를 앞둔 관망세 등으로 KOSPI는 혼조세가 전망된다. 9/4일 예정된 ECB와 BOJ 통화정책회의에서는 추가 통화완화 기대감을 높이는 발언이 제시될 수 있어 유동성 증가 기대감이 커질 수 있다. 다만 원/달러환율이 재차 1,010원대로 하락함에 따라 원화강세 우려가 부각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수출주 투자심리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출주보다는 내수주를 중심으로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9월 중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의 후속 조치가 발표되며 투자매력이 재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건설 업종과 9월 초부터 10월까지 이어지는 중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내수 소비주를 중심으로 선별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국내 수급 특징

[KOS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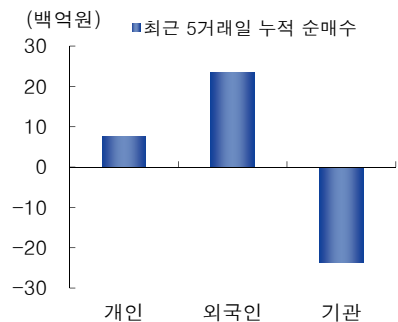
- 개인 -791억원, 외국인 1,273억원, 기관 -318억원

[KOSDAQ]

- 개인 -259억원, 외국인 443억원, 기관 -196억원

[선물]

- 개인 145계약, 외국인 1,490계약, 기관 -1,739계약



해외 증시 동향

새벽에 끝난 뉴욕증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소식이 전해지며 전일비 0.25% 하락한 17,079.57로 마감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동부지역을 침공했다고 밝히는 등 우크라이나 사태 우려가 재부각되며 투자심리가 위축되었다. 한편, 미국 경제지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며 미국 경제 회복 추세가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시켰다. 미국의 2Q GDP 잠정치는 4.25%로 예비치 4.0%와 시장 예상치 3.9%를 상회하며 지난해 3분기 이후 최고 성장률을 기록했다. 주간 신규실업수당 청구지수는 전주보다 1천명 감소한 29.8만명 기록했고, 7월 잠정주택판매는 전월비 3.3% 상승한 105.9를 나타내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Morning Line

김환 Economist 0212004-4761, hwan.kim@nhis.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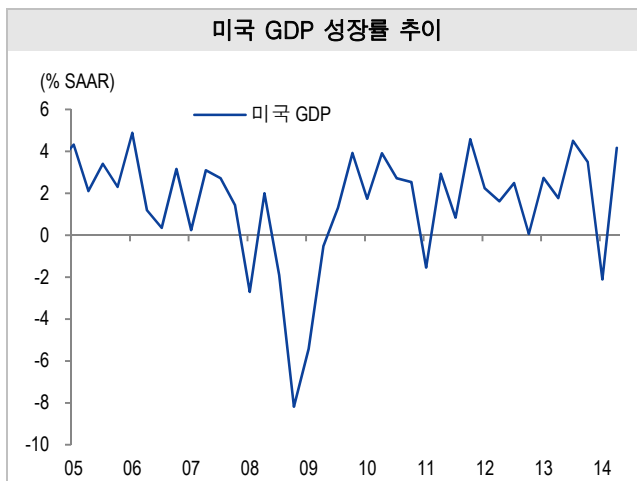
경제 지표

[미국 2Q GDP 성장률_수정치] 4.2% ← -2.1%, 속보치 4.0%(SAAR), 시장 예상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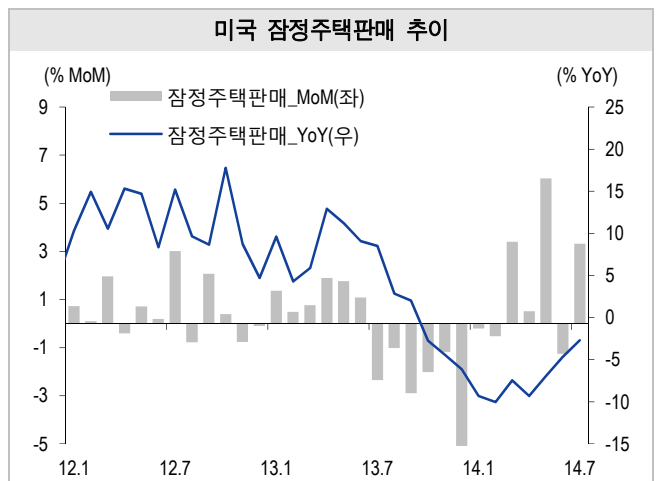
- 미국의 2Q GDP 성장률 수정치는 연율 기준 4.2%로 속보치(4.0%)대비 0.2%p 상향 조정. 주거용 투자와 순수출이 각각 속보치 대비 0.3%p, 6.9%p씩 하향 조정됐지만, 비주거용 투자가 8.4% 증가로 속보치대비 2.9%p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 향후 미국은 소비 경기와 설비 투자 중심의 견조한 경기 회복세가 지속될 전망

[미국 8월 잠정주택판매] 3.3% ← -1.3% (MoM), 시장 예상 0.5%

- 미국의 8월 잠정주택판매는 전월대비 3.3% 증가해 시장 예상(0.5%)을 상회. 최근 고용 개선으로 주택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판단. 다만 향후 시중 금리 상승을 감안할 때, 주택 구매자는 금리 수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격이 있어 주택 수요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음



자료: Bloomberg, NH농협증권



자료: Bloomberg, NH농협증권

Economic Table

날짜	발표 지수	14.2월	14.3월	14.4월	14.5월	14.6월	14.7월	14.8월	컨센서스
8/28(목)	미국 2Q GDP_수정치(% SAAR)	-	-2.1	-	-	4.2	-	-	3.9
	미국 7월 잠정주택판매(% MoM)	-0.5	3.4	0.5	6.0	-1.3	3.3	-	0.5
8/29(금)	한국 7월 광공업생산(% YoY)	3.9	2.8	2.5	-2.1	0.6	-	-	2.1
	한국 7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118.0	118.2	118.8	119.1	119.7	-	-	-
	미국 6월 개인소비(% MoM)	0.4	0.8	0.1	0.3	0.4	-	-	0.2
	미국 6월 개인소득(% MoM)	0.7	0.7	0.3	0.4	0.4	-	-	0.3
9/1(월)	한국 8월 수출(% YoY)	1.4	3.7	8.9	-1.5	2.5	5.4	-	2.3
	중국 8월 제조업 PMI	50.2	50.3	50.4	50.8	51.0	51.7	-	51.2
	유로존 8월 제조업 PMI	53.2	53.0	53.4	52.2	51.8	51.8	-	50.8
9/2(화)	미국 8월 ISM 제조업	53.2	53.7	54.9	55.4	55.3	57.1	-	56.6

주: 음영은 시장 컨센서스

자료: Thomson Reuters, Bloomberg, 연합뉴스포맥스, NH농협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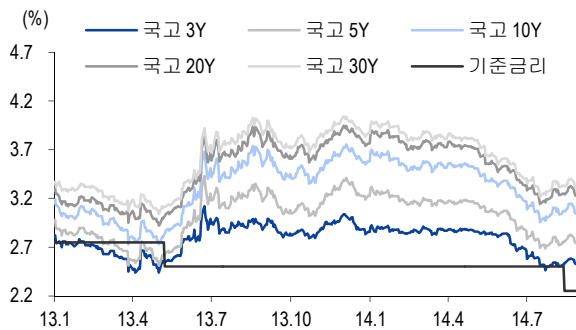
Morning Line

김지만 Fixed Income Analyst 02)2004-4421, jmk@nhis.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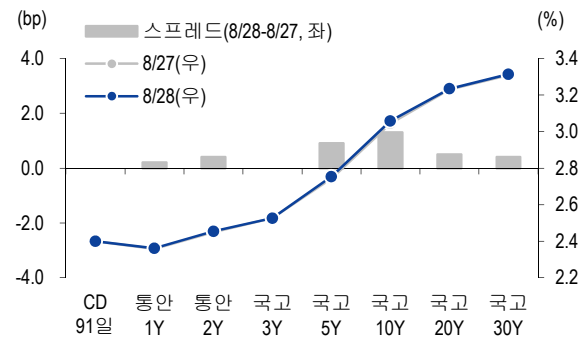
채권시장 상황
및 전망

금주 들어 재개된 채권금리 하락에 제동이 걸리는 모습이다. 전일에도 강세를 이어갔던 채권시장은 장 후반에 접어들면서 산업활동동향에 대한 경계감이 반영되면서 약세 마감하였다. 당장은 오늘 오전 8시 통계청이 발표하는 광공업생산과 선행지수/동행지수 추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6월 선행지수와 동행지수가 상반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경기 흐름 판단이 쉽지 않았다. 7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하락한다면 채권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전일 장 마감 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9월 국고채 입찰 규모는 총 6.7조원으로 8월대비 1천억원 작은 규모다. 9월 이후 실제 월평균 국고채 발행물량은 7.5조원 정도로 부담이 낮은 수준이다. 아직은 채권을 팔기보다는 사야 할 때이다. 오늘 발간되는 Fixed Income Weekly <금리인하 기대감이 살아있다>를 참고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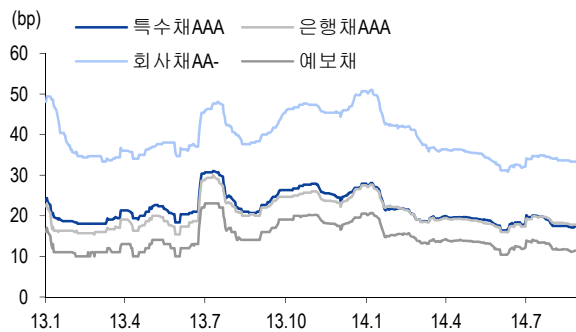
정책금리와 만기별 국고채수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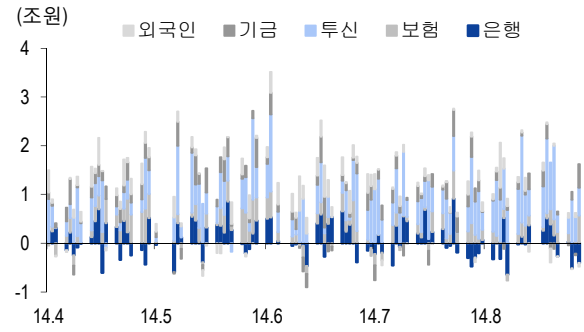
국고채 만기별 금리 등락 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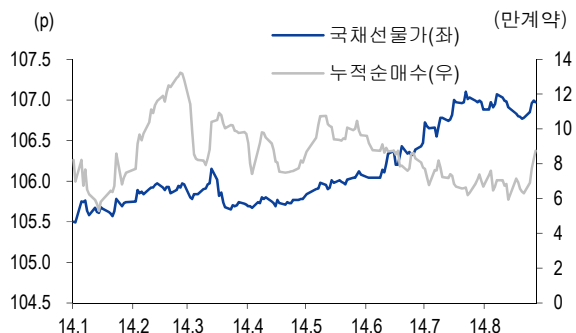
신용스프레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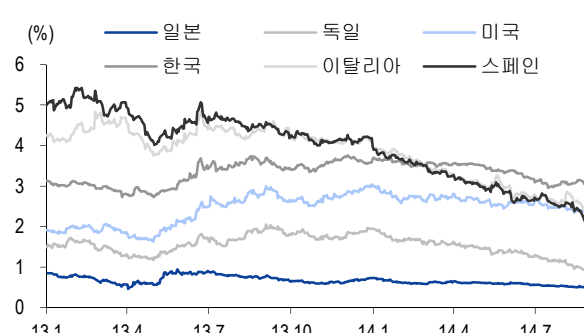
기관별 채권 순매수



국채선물 및 외국인 국채선물 순매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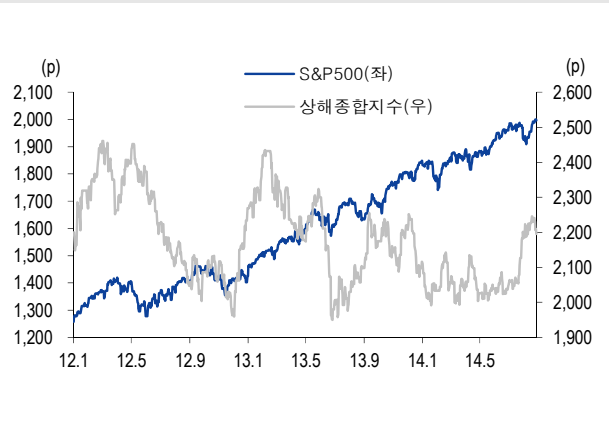
주요국 10년물 국채금리 추이



자료: 금융투자협회, 인포맥스,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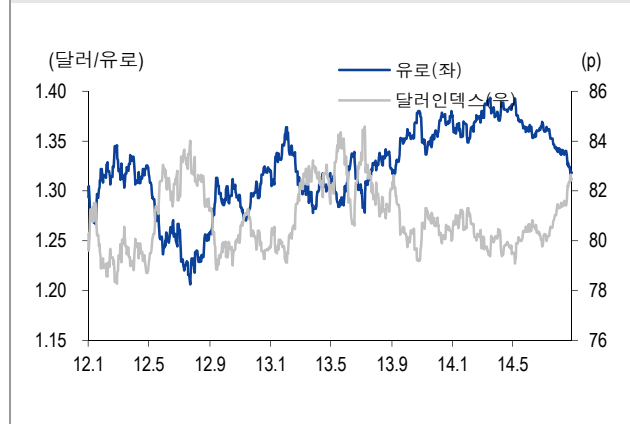
Morning Line

S&P 500 · 상해종합지수



자료: Bloomberg

유로 · 달러 인덱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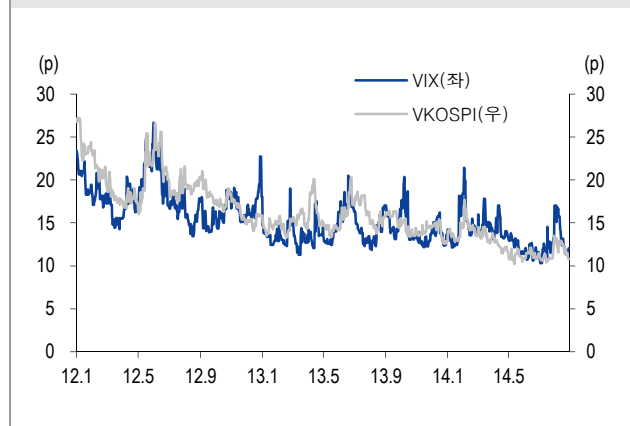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남유럽 주요국 C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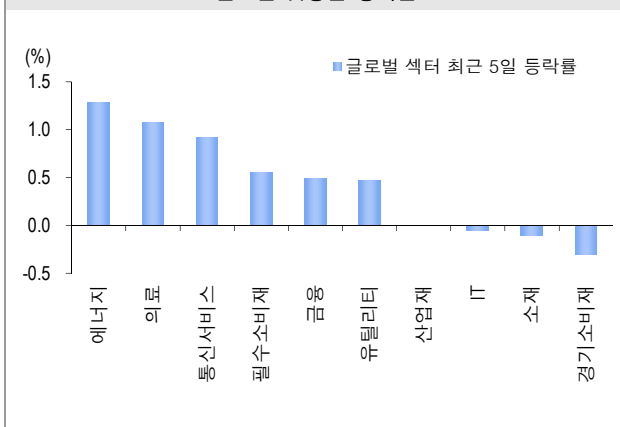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VIX · VKOS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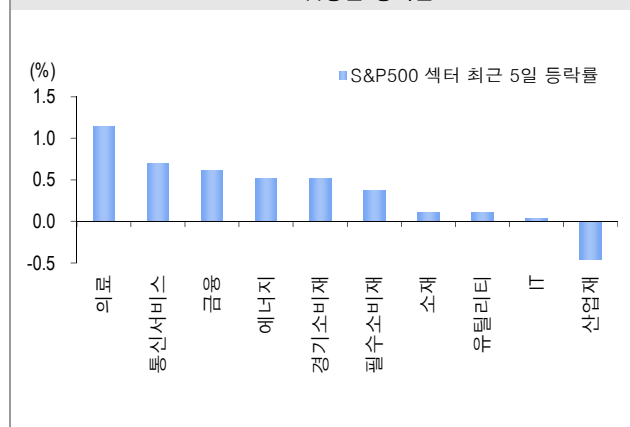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글로벌 업종별 등락률



자료: Bloomberg

S&P 500 업종별 등락률



자료: Bloomberg

LG이노텍 (011070)

견조한 실적 개선 추이 지속

- 3Q14 매출액 +8% QoQ, 영업이익 +8% QoQ 전망
- LED 턴어라운드가 가시화
- 주요 고객사의 신제품 출시에 따른 실적 모멘텀 기대
- 투자자견 매수, 목표주가 18.5만원 유지

3Q14 매출액 +8% QoQ, 영업이익 +8% QoQ 전망

3Q14 매출액은 1.67조원(+8% QoQ), 영업이익은 967억원(+8% QoQ)으로 예상된다. 3분기 실적은 이전 전망치에 비해 소폭 상향되긴 했으나, 크게 의미 있는 수치는 아니다. 광학솔루션 사업부가 주요 고객사의 신제품 확대, 캡티브 업체의 전략폰 글로벌 판매 확대에 따른 물동량 확대와 신기능 채용으로 인한 ASP 확대로 외형 성장을 주도할 전망이다. 기판/소재 부문에서 HDI는 고객사 신제품 진입에 따른 물량 증가로 인해 매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익은 전분기 적자에서 BEP 수준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Touch솔루션은 성수기 진입에 따른 물량 확대가 전망된다. LED 사업부는 조명 비중의 상승으로 전분기비 매출은 5% 상승하고, 가동률 확대에 따른 적자폭 축소가 기대된다. 차량부문은 전 분기와 비슷한 수준의 매출액과 이익률이 기대된다.

LED 턴어라운드가 가시화

LED 부문의 적자폭 축소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1) 수익성 높은 조명 비중의 상승, 2) 2H13에 진행된 구조조정의 효과, 3) 원재료가 하락에 따른 영향 때문이다. 3분기 중 월별 흑자전환까지도 전망되며, 감가상각비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2H15부터는 흑자구조가 정착될 것으로 예상된다.

매수 (유지)

목표주가(6개월)	185,000원
현재주가(8/28)	132,000원
52주 최고/최저	150,000/75,000원
시가총액	3,124십억원
자본금	101십억원
발행주식수	2,367만주
액면가	5,000원
주요주주(지분율)	LG전자 외 (40.8%)
외국인지분율	11.8%
60일 평균 거래대금	23십억원
절대수익률(1/3/6개월)	2.3/3.1/44.4%
상대수익률(1/3/6개월)	1.0/0.2/37.8%



Analyst 김창진

02)2004-4273, kchangjin@nhis.co.kr

영업실적과 Valuation (IFRS 연결 기준)

결산월	매출액 (십억원)	(% chg.)	영업이익 (십억원)	세전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 chg.)	P/E (배)	EV/EBITDA (배)	P/BV (배)	ROE (%)
12/2012	5,316.0	16.8	77.3	-17.5	-24.9	-1,237	적자지속	N/A	6.3	1.3	-1.9
12/2013	6,211.5	16.8	136.2	22.0	15.5	770	흑자전환	108.6	5.2	1.3	1.2
12/2014(F)	6,388.4	2.8	338.8	206.0	156.1	6,955	802.7	19.0	5.0	1.8	10.1
12/2015(F)	6,985.5	9.3	392.7	312.5	236.8	10,007	43.9	13.2	4.7	1.6	12.5
12/2016(F)	7,544.1	8.0	430.1	356.3	270.1	11,411	14.0	11.6	4.2	1.4	12.6

주: 영업이익은 개정 K-IFRS 기준(매출총이익-판관비), 순이익은 지배주주귀속분

이 자료는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로서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복사될 수 없습니다. 자료의 내용은 저희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한 데이터에 근거한 것이나 자료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거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 자료를 인용하거나 이용하시는 분은 이 자료와 관련한 최종 의사 결정을 자기 책임 아래 내리기 바랍니다.

현대공업 (170030)

성장 스토리에 수익성까지 견비

- 암레스트, 시트패드, 헤드레스트 등 차량 내장재 전문업체
- 2Q14는 신차 효과 및 ASP 상승으로 호실적 기록
- 14년 매출액 1,744억원, 영업이익 183억원으로 성장 추세 지속

암레스트, 시트패드, 헤드레스트 등 차량 내장재 전문업체

현대공업은 69년 설립된 차량용 시트부품, 내장재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주요 제품으로는 시트패드, 암레스트, 헤드레스트, 사이드볼스터 등이 있다. 전세계 자동차 시트의 시장 전망은 12년 520억달러 → 17년 665억달러로 연평균 5%의 성장이 예상된다. 1Q14 기준 제품별 매출액 비중은 암레스트 49%, 시트패드 34%, 헤드레스트 13%, 사이드패드 4%로 구성되어 있다.

2Q14는 신차 효과 및 ASP 상승으로 호실적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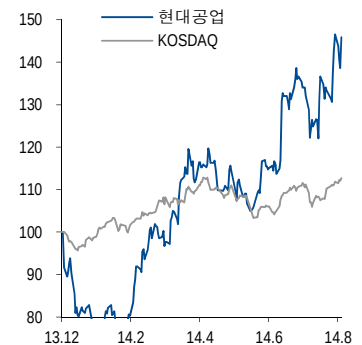
동사의 2Q14 실적은 매출액 464억원(+17.5% YoY), 영업이익 59억원(+12.8% YoY, OPM 12.8%)을 기록했다. 2분기는 신형 제너시스, LF소나타의 판매 호조와 북경 현대차의 밉투, 테노바의 물량이 증가하면서 호실적을 기록했다. 하반기에도 제너시스 판매 호조, 신형 쏘렌토 출시 등 신차 효과 및 ASP 상승으로 실적 호조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14년 매출액 1,774억원, 영업이익 183억원으로 성장 추세 지속

2014년은 매출액 1,774억원(+15.3%), 영업이익 183억원(+15.4%, OPM 10.3%)으로 예상된다. 동사는 1) 고급 차종의 증가로 제품별 ASP 상승, 2) 지속적인 신차 시장 선점으로 실적 성장 추세 지속, 3) 백보드판넬 등 제품군 확장, 4) 중국의 북경기차, 장안기차 등으로의 고객군 확대 등 실적 모멘텀을 바탕으로 향후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예상된다.

Not Rated

목표주가(6개월)	- 원
현재주가(8/28)	11,100원
52주 최고/최저	11,150/5,640원
시가총액	111십억원
자본금	십억원
발행주식수	1,000만주
액면가	500원
주요주주(지분율)	강현석 외 (66.1%)
외국인지분율	3.2%
60일 평균 거래대금	1십억원
절대수익률(1/3/6개월)	13.3/33.7/48.0%
상대수익률(1/3/6개월)	9.8/29.0/37.3%



Analyst 우창희

02)2004-4419, ch@nhis.co.kr

영업실적과 Valuation (IFRS 연결 기준)

결산월	매출액		영업이익	세전이익	순이익	EPS		P/E	EV/EBITDA	P/BV	ROE
	(십억원)	(% chg.)	(십억원)	(십억원)	(십억원)	(원)	(% chg.)	(배)	(배)	(배)	(%)
12/2011	0.0	0.0	0.0	0.0	0.0	0	N/A	N/A	N/A	N/A	0.0
12/2012	107.2	0.0	9.3	9.2	7.3	1,006	N/A	N/A	N/A	N/A	27.0
12/2013	153.9	43.5	15.8	16.0	10.8	1,425	41.8	4.4	2.1	1.1	25.7
12/2014(F)	177.4	15.3	18.3	18.7	14.5	1,447	1.5	7.7	3.7	1.6	22.8
12/2015(F)	198.4	11.8	21.2	21.4	16.7	1,668	15.3	6.7	2.6	1.3	21.3

주: 영업이익은 개정 K-IFRS 기준(매출총이익-판관비), 순이익은 지배주주귀속분

이 자료는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로서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복사될 수 없습니다. 자료의 내용은 저희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한 데이터에 근거한 것이나 자료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 결정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거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 자료를 인용하거나 이용하시는 분은 이 자료와 관련한 최종 의사 결정을 자기 책임 아래 내리기 바랍니다.